

대구, 신·재생 에너지 육성시스템 구축

대구테크노파크 나노부품실용화센터는 3월19일 영남대 대경태양전지 지역혁신센터와 신·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.

대구테크노파크는 대경태양전지와의 협약을 통해 보유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은 물론 기업들에 대한 기술 지원, 개발기술 이전, 전문 기술인력 양성, 현장인력 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.

특히 대구를 비롯한 경상북도 지역이 신·재생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부품·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기반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09/03/20>